

幼兒教育 · 保育福祉研究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016, Vol. 20, No. 4. pp. 591-611

어머니의 출산 전 · 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김진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서주현(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배희분(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조교수)

어머니의 출산 전·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김진경* · 서주현** · 배희분***

《요 약》

이 연구는 출산 전과 출산 후 우울, 그리고 출산 후 1년경의 양육스트레스가 생후 1년경에 측정한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 변인들의 총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출산 전 우울은 출산 후 우울 경향을 높였고 출산 후 우울은 출산 후 1년경의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이는 생후 1년경의 영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력은 생후 2년까지 이어져, 출산 후 2년경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생후 2년경의 영아 발달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 출산 후 우울이 오래 지속되어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이 영아발달에 부정적 영향요인임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출산전후 우울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주제어: 산전 우울, 산후 우울, 양육스트레스, 영아발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jhsuh@smu.ac.kr)

***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조교수

I. 서론

인간이 일생 중 경험하는 2번의 성장 급등기 중 제 1성장 급등기인 영아기는 양적, 질적으로 발달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 이외에도 평생에 걸친 전 영역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또한 영아기는 자조능력이 부족하다는 발달상의 특징으로 인해 발달의 상당 부분이 양육자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자극의 영향을 받는 유아기의 발달에 비해, 대부분의 영아가 기관보육을 경험하기 이전인 15개월 이전의 초기 경험은 대부분 주양육자와의 관계로 한정되기 마련이다(이경하, 서소정, 2009).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외부환경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밝히고 있다. 그 중 영아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어머니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의 어휘발달이 늦어져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임순화, 박선희, 2010). 즉, 주양육자로 기능하는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는 영아기 발달부터 전생애 발달에 거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영아를 돌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영아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에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유대관계인 애착은 이후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양육자가 영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김한나, 서소정, 2012; Whiffen & Gotlib, 1989). 영아기에 주양육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어머니가 영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Abidin, 1992). 우울한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자녀에 대한 몰입보다 자기 자신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에 따뜻하고 민감하게 대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조숙환, 주금정, 2010; 이제영, 이경숙, 정유경, 신의진, 2011). 따라서, 애착 형성에 있어서도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Matins & Gaffan, 2001). 반대로,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영아에게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 및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양육역할모델 부족,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 및 양육경험의 부족 등으로 부모역할에 부적응하는 어머니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Hummen, 2003).

특히, 오승아와 유준호(2010)는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스트레스, 월령에 따른

발달의 차이를 밝히고 있는데, 자녀의 월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발달 상황이나 주변 상황이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자녀의 출생 전과 후,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는 어떻게 변하며 그것이 영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신화 중 하나는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항상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각종 매체 및 마스크에서 보여주는 사랑이 가득한 상호작용에 대한 신화가 부지불식간에 모성과 어머니 이미지에 관한 환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관계에서는 부모됨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출산 전·후에 우울을 경험하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문경주, 오경자, 1995).

산전우울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가 느끼는 우울감으로, 여러 연구(Rice, Jones & Thapar, 2007; Talge, N. M., Neal, C., Glover, V., & Early Stress Transitional Research Prevention Science Network, 2007)를 통해 출산 전 태아의 심장박동 및 행동수준, 출생시 체중 및 정신병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산후 우울증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Oppo et. al., 2009). 산후우울은 출산 후에 산모가 느끼는 우울감으로,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아이 양육에 대한 불안감, 임신 및 출산 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 피로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김지양, 김정규, 2008; Righetti-Veltema, Bousquet, & Manzano, 2003). 산후 우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산을 마친 여성들에게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 후 경증의 우울증을 경험한다. 출산 후 일어나는 우울한 정서의 변화를 크게 산후 우울감, 산후우울증, 산후 정신병으로 구분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이중 산후 우울감은 대부분의 산모들이 경험하나 산후 2주 내에 사라지는 경증의 우울감을 뜻한다. 출산 후 4주 이내에 발병하여 이후에도 지속되며 우울감의 증상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를 산후 우울로 본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산후에 22.4%의 산모가 산후 우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조현주, 최규연, 이정재, 이임순, 박문일, 나중열, 이근영, 이종민, 권정혜, 2004).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인지발달이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다. 산후우울을 경험하는 어머니에게서 성장한 아동은 건강한 어머니에게서 성장한 아동에 비해 인지 능력의 발달이 좋지 않다는 연구(이태균, 이지향, 2000)도 보고된 바 있다. 또, 선행연구(조숙환, 주금정, 2010)에 의하면, 자녀와의 화행(speech act)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우울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일반적인 어머니보다 질문하기, 위로하기, 의도표현하기 등의 화행기능은 빈도가 훨씬 낮고, 다양한 화행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울한 어머니는 아동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하며 아동의 마음을 담화상황에 적시에 맞추어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 화행 교류 빈도가 낮아 지므로 아동의 언어발달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Gotlib & Goodman, 1999, Tluczek & Brown, 2008). 어머니의 산후 우울은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개인의 정신병리라는 차원에서 심리학이나 의학 분야 등에서 주로 연구되어왔을 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은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관계 등 가까운 가족 관계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산전·후 우울의 영향력은 직접적이거나 혹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을 통해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하여 여러 영역에 걸친 영아의 발달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Misri, S. et al. 2010; 문경주, 오경자, 1995).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고(Coplan, Bowker, & Cooper, 2003), 이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부정적 상호작용을 유발하거나 긍정적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민감한 양육행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민감하지 못한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 애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Cramer, 1993) 이후의 아동기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Coplan et al., 2003)과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이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양육스트레스가 매개한다는 것(이희정, 2011)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 행해진 선행연구(송선영, 김광웅, 2000)에서는 어머니의 산후우울 요인 중 자녀에 대한 부담감이 아동의 내적통제 및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을 겪는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무기력해짐에 따라 자녀를 대할 때 일관적이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정서가 전달되어 자녀는 낮은 성취동기와 내적 통제력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우울증이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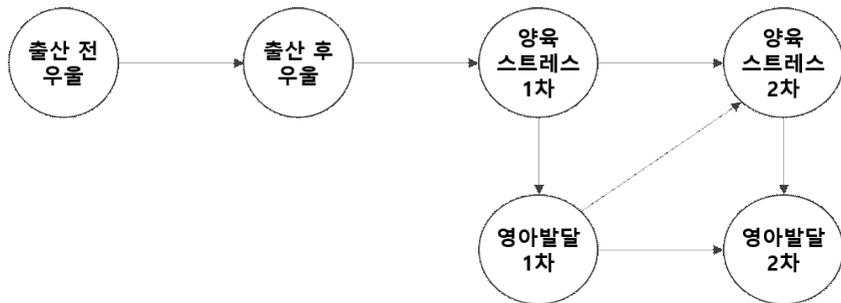
머니의 우울 변인 중 인지적 양상에서 자아개념의 손상 요인은 아동이 다른 아동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어머니의 민감하지 못한 양육행동으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형성된 아동이 이후 타인과의 대인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어머니의 산후우울은 육아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스트레스 받는 정도를 가중시킬 수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 우울감으로 인해 인지적 왜곡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은 어머니에게 다양한 스트레스원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이 어머니에게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것이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으로서 중대한 가족생활사건인 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이다. 출산 후 산욕기(postpartum period)는 여성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로 전환되는 시기로, 이 때 여성은 새로운 역할인 어머니 역할 수행에 접하게 되고 신체적인 변화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임신부가 출산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다양한데, 크게 진통 및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스트레스,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어머니로서의 역할수용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이 있다. 이 중 산모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이며 산후 우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O'Hara et al., 1991). 양육스트레스는 현대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이는 과거사회에 비해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과거 확대가족 하에서 양육을 도와줄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 내에서 부모나 친척 어른이 영아를 양육하는 것을 쉽게 보고 자라며 양육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양육효능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현대사회의 핵가족 형태는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아 양육에 대한 지식과 효능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아이의 임신 및 출산시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보는 것이다.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으로 영아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되었다(곽금주, 김수정,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안녕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주로 상호작용하는 영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Abidin, 1992)에 따르면, 생후 첫 3년 동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형성 및 자녀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인 양육 행동을 야기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부정적, 강압적,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야기한다(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양육행동은 부

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린 영아기일 수록 자녀와 부모의 상호작용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유아기 자녀와 부모의 상호작용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영아나 신생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옥경희, 천희영, 2012). 영아기는 제1성장급등기로 모든 영역에서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영아기 발달의 특징은 각 영역의 발달이 서로 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발달의 양상을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산전 우울과 산후 우울, 양육스트레스를 선정하였으며,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이 스트레스를 통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2008년에 1차년도 표본이 구축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Edler(1998)의 생애이론과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아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심리 사회적 변인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에 해당되는 출산 전 우울, 출산 후 우울,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력을 추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출산전 1개월경의 산전우울과 출산 후 3-4개월경의 산후 우울, 그리고 출산 후 1년경의 양육스트레스와 출산 후 2년경의 양육스트레스의 네 시점에서의 부모관련 변인을 선정하고 각 변수가 영아의 출생 후 1년경의 발달과 2년경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 각 변인 간의 영향력과 각 변인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으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조사를 실시할 장기종단연구 데이터이다. 모집단은 2008년에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며(제주도 제외), 1차년도의 표본은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총 2,562가구의 예비 표본을 선정하였다.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전국 의료기관 중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1차 추출단위로 활용하였으며, 2006년도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전국을 6개 권역별(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로 층을 나누어 권역별 연간 분만건수를 비례배정하였다.¹⁾ 예비표본 중, 1차년도(2008년)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원표본으로 명명하였으며, 2차년도(2009년)에 52가구, 3차년도(2010년)에 20가구를 추가 표집하여 1-3차년도 조사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2,150가구를 전체 표본으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의 일반 조사 대상 가구 중 1차 년도(2008년)에서 3차년도(2010년) 조사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2,150명의 신생아 가구이다. 본 연구는 1차년도(2008년), 2차년도(2009년), 3차년도(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1) 출산 전·후 우울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된 'K6(Kessler et al., 2002)'는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 대상의 정신 건강 측정을 위하여 간편형으로 제작된 도구로서, DSM-IV에 대한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SCID)을 실시하여 구분된 정신장애군과 비장애군을 변별할 수 있는 등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도구이다. 주어진 보기의 '전혀 안 느낌(1점)'부터 '항상 느낌(5점)'

¹⁾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설계는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용역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7년도 예비조사를 거쳐 확정된 것임.

중에서 평정하는 리커트 척도이다. 총 6개의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특히, 6점~13점은 정상수준, 14점~18점은 경도/중등도(mild/moderate) 우울, 19점~30점은 중도(severe) 우울로 분류된다. 출산 전 우울은 출산 1개월 전의 우울에 대해 측정한 것이고, 출산 후 우울은 출산 3~4개월 경에 측정한 것이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는데, 신생아를 둔 어머니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한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스트레스는 출산 후 1년경과 생후 2년경에 측정한 결과를 각각 사용하였다.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였다.

3) 영아발달

아동발달 특성은 K-ASQ(Korean-Age & Stage Questionnaire)를 통해 조사하였다. 1980년대 미국의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SQ는 4개월에서 60개월의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K-ASQ는 원문 ASQ 2판을 한국 실정에 맞게 최근에 표준화하였고, 전국의 영유아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신뢰도, 절전점수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허계형 외, 2006)가 수행되었다.

총 3,220명의 영유아와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표집하여 자료 분석한 결과, 각 영역의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의사소통' 영역 .75, '대근육운동'영역 .85, '소근육운동'영역 .74, '문제해결'영역 .72, '개인-사회성'영역 .65였다. K-ASQ의 질문지는 총 5가지 발달 영역, 즉 의사소통(communication), 대근육 운동(gross motor), 소근육 운동(fine motor), 문제해결(problem solving), 개인-사회성(personal-social)에 각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어, 영유아발달의 제 영역에 대한 자료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수합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응답자는 어머니이며, K-ASQ의 5개 영역별 문항에 대하여 부모는 '예(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세 가지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의 영아발달은 생후 1년경과 생후 2년경에 각각 측정하였다.

3. 연구모형

출산 전 우울과 출산 후 우울,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AMOS 18.0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산전 우울, 산후 우울, 양육스트레스 및 영아의 발달 간 구조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적 모형에 대해 확인적 검증을 하는 통계방법이다. 여러 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해서 추출된 공통변량을 잠재변수로 사용하므로 측정오류가 통제된다는 점이 구조방정식의 장점이다(Hong, 2000).

본 연구의 변수들의 복잡한 관계를 추론하는데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하였고, 계수의 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 CFI, TL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 분석

〈표 1〉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출산전우울		6	27	11.37(3.92)
출산후우울		6	30	9.08(3.60)
양육스트레스1차		10	50	27.31(6.37)
양육스트레스2차		10	47	27.42(6.19)
영아발달 1차	의사소통	10	60	53.53(9.01)
	대근육	10	60	57.10(6.76)
	소근육	5	60	54.59(8.84)
	문제해결	0	60	56.02(7.35)
	개인/사회성	5	60	54.37(8.40)
영아발달 2차	의사소통	5	60	49.22(11.30)
	대근육	0	60	56.58(8.81)
	소근육	0	60	47.75(11.86)
	문제해결	0	60	49.53(11.90)
	개인/사회성	0	60	52.49(10.93)

각 변인의 점수는 하위문항의 합계점수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1〉, 〈표 2〉에 제시하였다. 출산 전 우울 평균이 출산 후 우울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출산전 우울 11.37점, 출산후 우울 9.08점), 양육스트레스는 1차 년도와 2차 년도의 평균점수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산 후 1년경 양육스트레스 27.31점, 출산 후 2년경 양육스트레스 27.42점).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1	5-2	5-3	5-4	5-5	6-1	6-2	6-3	6-4	6-5
1 출산전우울	1													
2 출산후우울	.255**	1												
3 양육스트레스 1차	.282**	.172**	1											
4 양육스트레스 2차	.263**	.225**	.635**	1										
5-1 영아발달1차 (의사소통)	-.053*	.026	-.090*	-.099*	1									
5-2 영아발달1차 (대근육발달)	.001	.014	-.016	-.039	.446**	1								
5-3 영아발달1차 (소근육발달)	-.033	.032	-.089*	-.095*	.434**	.426**	1							
5-4 영아발달1차 (문제해결)	-.030	.049	-.067*	-.081*	.447**	.435**	.606**	1						
5-5 영아발달1차 (개인/사회성)	-.012	.024	-.070*	-.086*	.500**	.473**	.518**	.517**	1					
6-1 영아발달2차 (의사소통)	-.016	-.007	-.061*	-.074*	.158**	.108**	.191**	.157**	.174**	1				
6-2 영아발달2차 (대근육발달)	.006	.005	-.015	-.038	.027	.155**	.127**	.104**	.077**	.199**	1			
6-3 영아발달2차 (소근육발달)	-.068*	.045	-.050*	-.004	.152**	.107**	.143**	.129**	.111**	.364**	.266**	1		
6-4 영아발달2차 (문제해결)	-.042	.030	-.043	-.029	.150**	.103**	.169**	.144**	.132**	.393**	.266**	.547**	1	
6-5 영아발달2차 (개인/사회성)	-.021	.021	-.080*	-.085*	.155**	.149**	.212**	.197**	.201**	.393**	.310**	.330**	.428**	1

*p<.05, **p<.01, ***p<.001

2. 연구모형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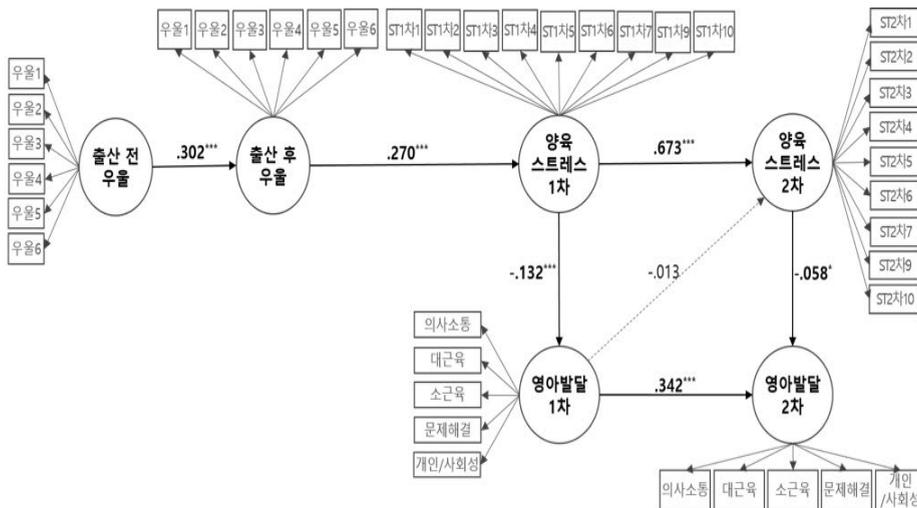
1)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이 0.4 이하로 나타나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김계수, 2010). 이에 근거하여, 1차 측정결과 요인부하량이 0.4이하로 적합하지 않게 나타난 양육스트레스1차 변인의 8번 문항(.398), 양육스트레스2차 변인의 8번 문항

(.325)을 제거한 뒤 재평가한 결과, 표준카이자승치가 3491.892, TLI가 .881, CFI가 .898, RMSEA가 .043이었으며 요인부하량도 모두 기준치인 0.4이상으로 나타났다.

2)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 결과에 따른 경로계수와 그림은 각각 표 3,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출산전우울이 양육스트레스 1차와 2차에 영향을 미쳐서 영아발달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 전에 우울할수록 출산 후에 우울할 가능성이 높았으며($B=.489, p<.001$), 출산 후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후 1년경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318, p<.001$). 또한, 생후 1년경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같은 해의 영아발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1.110, p<.001$). 이러한 영향은 1차 년도에 그치지 않고 2차 년도 스트레스와 영아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출산 후 1년경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출산 후 2년경의 스트레스 수준도 높았으며($B=.668, p<.001$), 출산 후 2년 경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생 후 2년경의 영아발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525, p<.05$). 즉,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레스는 영아발달에 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우울이 지속되어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지 않도록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 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χ^2 3616.028 df 713 TLI .877 CFI .893 RMSEA .044(lo .042 hi .045)

〈그림 1〉 구조모형

〈표 3〉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표준오차	t
출산전우울 → 출산후우울	.489	.302	.050	9.850***
출산후우울 → 스트레스1차	.318	.270	.035	9.039***
스트레스1차 → 영아발달1차	-1.110	-.132	.231	-4.798***
스트레스1차 → 스트레스2차	.668	.673	.027	24.701***
영아발달1차 → 스트레스2차	-.002	-.013	.003	-.597
영아발달1차 → 영아발달2차	.349	.324	.034	10.158***
스트레스2차 → 영아발달2차	-.525	-.058	.249	-2.107*

*p<0.5, ***p<.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출산 전 우울과 출산 후 우울이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자녀의 영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각 변인 간 관계를 종단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출산 전 후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개입을 통해 보다 건강한 영아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 표본인 한국아동패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출산 전 우울과 출산 후 우울(출산 후 4개월경 측정), 출산 후 1년경에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와 출산 후 2년경에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출생 후 1년과 2년에 각각 측정한 영아발달에 관한 측정치를 이용하여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관계와 영향력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산전 우울은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Oppo et al., 2009) 후 우울의 매우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산전우울은 산후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Oppo et al., 2009) 산전 우울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산후 우울로 이행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어머니의 산후 우울이 궁극적으로 영아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산전우울은 직접적으로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산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후 우울이 당시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선행연구(Coplan et al., 2003; Lee, 2011)에서 산전 우울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산전 우울이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산후우울의 변수를 더함으로써 산전 우울이 산후 우울을 유발하여 이것이 이후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가로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어머니의 산후 우울은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영아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후 1년경뿐만 아니라 생후 2년경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 종단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산 후 우울은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영아발달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3-4개월경의 산후 우울 성향이 출산 후 1년 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산후 우울이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나 주변 가족 및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에 이미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출산 후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된다. 선행연구(최인애 등, 2012)에서 산후 우울은 영아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오랜기간 지속되어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산후 우울은 간접적으로 영아의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산후 우울이 지속되어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출산 후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영아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와 함께, 출산 후 1년경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출산 후 2년경의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생후 2년경의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2년경의 영아발달은 생후 1년경의 영아발달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는 생후 2년경의 영아발달에 여러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조복희·양미선,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부모역할을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Wrate et al., 1985)의 결과를 통해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산전후우울이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영아발달에까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총체적인 경로를 제시하고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의의를 갖는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산후 우울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우울증의 발병 여부 자체보다는 우울 성향으로 인한 영향력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

한 양육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비로소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및 영아발달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관련 변수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출산 후 어머니의 우울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영아발달을 이끄는 중요 요인이 된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출산 후 우울을 야기하는 중요 요인인 산전 우울을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적극적인 출산 전 교육 및 사회지원망의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산전 우울에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하고 출산 후 우울 정도가 심해지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산모를 위한 교육 및 건강 관련 지원과 육아 지원에 힘쓰는 등의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영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국가적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산전후우울이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미치는 종단적 영향과 생후 2년까지 지속되는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밝혀 영아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방법과 시기, 개입 대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스트레스를 높이지 않도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나 부부관계 개선, 사회적지지 등의 개입이 우울성향이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밝히는 추가 연구가 행해진다면 영아의 발달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자녀가 유아기에 이르렀을 때에도 유아발달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추천된다. 또한 장기 종단 연구를 위해 수집되고 있는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영아발달 측정 척도와 유아발달 측정 척도가 발달 특성상 서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시기의 영역별 발달을 장기 종단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다면 부모의 정신적 건강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그림을 얻고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조기 개입하는 데에 기초자료로서 값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 김수정(2004). 어머니의 내적변인에 따른 영아의 신체접촉 유형간 비교: 우울, 태도,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18.
- 김계수(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국 한나래 출판사.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지양, 김정규(2008). 사후우울감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 연구: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11-140.
- 김한나, 서소정(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과 영아 발달간의 관계 연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검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07-329.
- 문경주, 오경자(1995).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41-55.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203-215.
- 송선영, 김광웅(2000). 모의 산후 우울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3(1): 27-38.
- 오승아, 유준호(2010).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한국 유아의 발달특성 연구.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561-578.
- 옥경희, 천희영(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 이경하, 서소정(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학가정학회지, 47(3): 87-102.
- 이희정(2011). 어머니의 산전 우울감이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35: 99-126.
- 이제영, 이경숙, 정유경, 신의진(2011). 산후 우울 성향 어머니와 6-8개월 영아의 상호작용 분석. 한국아동학회지, 32(3): 203-220.
- 이태균, 이지향(2000). 총설: 산후우울증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3(1): 518-530
- 임순화, 박선희(2010).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51-278.
- 장희정(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지아(1990). 산후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망이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복희, 양미선(200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산후우울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5(1), 79-87.
- 조현주, 최규연, 이정재, 이임순, 박문일, 나중열, 이근영, 이종민, 권정혜(2004). 산후 우울증에 대한 예측

- 및 임신 중 우울증의 회복 요인에 대한 연구. *대한주산의학회잡지*, 15(3): 245-254.
- 조숙환, 주금정(2010). 산전-산후 우울 성향 어머니의 6개월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특성과 영아의 언어 발달. *한국심리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서울.
- 최인애, 이경숙, 신의진, 박진아(2012). 어머니 산전 산후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와 영아의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125-148.
- 홍세희(2000). 특별기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bidin, R. R.(1992).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DSM-IV-TR. Washington, D.C.: Author.
- Coplan, R. J., Bowker, A., and Cooper, S. M.(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 376-395.
- Cramer, B.(1993). Are postpartum depressions a mother-infant relationship disorde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4: 283-297.
- Gotlib, I. and Goodman, S.(1999). Children of parents with depression. In W. Silverman and T. Ollendick(Eds.), *Developmental Issues in the clinical treatment of children*. New York: Allyn & Bacon.
- Hummen, C.(2003). Interpersonal stress and depression in women. *Journal of Affect and Disorder*, 74: 49-57.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T., Waters, E. E., and Zaslavsky, A.(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Matins, C., and Gaffan, E.(2000). Effects of early maternal depression on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 737-746.
- Misri, S. M., Kendrick, K., Oberlander, T. F., Norris, S., Tomfohr, L., Zhang, H., and Grunau, R. E.(2010). Antenatal depression and anxiety after postpartum parenting stress: A longitudinal, prospective stud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5(4): 222-228.
- O'Hara, M. W., Schlechte, J. A. Lewis, D. A., and Varner, M. W.(1991). Controlled prospective study of postpartum mood disorders: Psychological, environmental, and hormonal variab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63-73.
- Oppo, A., Mauri, M., Ramacciotti, D., Camilleri, V., Banti, S., Borri, S., Rambelli, M. S., Montagnani, S., Cortopassi, A., Bettini, A., Ricciardulli, S., Montaresi, S., Rucci, P., Beck, C. T., and Cassano, B. (2009). Risk Factors for Postpartum Depression: The role of the postpartum depression predictors

- inventory-revised(PDPI-R).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12: 239-249.
- Rice, F., Jones, I., and Thapar, A.(2007). The impact of gestational stress and prenatal growth on emotional problems in offspring: A review.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5: 171-183.
- Righetti-Veltema, M., Bousguet, A., and Manzano, J.(2003). Impact of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s on mother and her 18-month-old infant.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4): 75-83.
- Talge, N. M., Neal, C., Glover, V., and Early Stress Transitional Research Prevention Science Network(2007). Fetal and neonatal experience in child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 245-261.
- Tluczek, C. R., and Brown, R.(2008). A mother-infant therapy group model for postpartum depress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9(5): 514-536.
- Whiffen, V., and Gotlib, I.(1989). Infants of postpartum depressed mothers: Temperament and cognitive statu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74-279.
- Wrate, R. M., Rooney, A. C., Thomas, P. F., Cox, J.L.(1985). Postnat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A three-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Psychiatry*, 146, 622-627.

투고일 : 9. 30. / 수정일 : 11. 2. / 채택일 : 12. 21.

ABSTRACT

The longitudinal effects of mother's antenatal/postpartum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on the infant development

KIM, Jin Kyung · Suh, Joo Hyun · Bae, Hee Bo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other's antenatal/postpartum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on infant develop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antenatal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mother's postpartum depression and indirect effec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infant development through mother's postpartum depression. Second, mother's postpartum depression had a negative indirect impact on infant's development through mother's parenting stress for two years of infancy. Third,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direct effect on infant development. Considering all, we concluded that mother's depression had a negative impact on infant development when it lasts longer and causes parenting stress. Therefore, early intervention for mother's antenatal/postpartum depression is needed.

Key words: antenatal depression, postpartum depression, parenting stress, infant development